

唐代 香文化 研究

전혜숙 · 이애련*⁺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동아대학교대학원 의상섬유학과 패션뷰티디자인전공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ulture of Incense in the Period of T'ang

Hea-Sook Chun · Ae-Ryun Lee *⁺

Prof.,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Doctor's Degree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

(2005. 10. 26. 접수; 11. 9. 채택)

Abstract

From the ancient times, incense was used for various usages including a means of beauty expression with flavor, a medicine for disease treatment and a device for religious event or ritual.

The period of T'ang was the times when cultural and material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were very actively made under the political openness of the Chinese nation. Here the exchanges were made mainly through inland trade, called Silk Road(絲綢之路) and marine trade routes, Incense Road(香料之路). This indicates that incense was one of the main items actively traded at that time. In addition, literatures of the T'ang period show that in the Chinese nation, a wide range of classes from the imperial family to the public used incense for many different purposes. This suggests that the culture of incense was deeply prevailed and very socially significant in T'ang.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factors that promoted the incense culture of T'ang and the applications and types of incense widely used in the period of T'ang.

First, influential religions and the openness of sex culture were main social factors that made incense culture flourish in the period of T'ang. Above all, two main religions of the Chinese nation, Buddhism and Taoism became secularized under political protection by the imperial family. As Buddhism was popularized, the Buddhist ritual of incense burning made a contribution to making public incense culture. Providing its doctrines of eternal youth and eternal life, Taoism necessarily used incense to form a Taoistic climate. The flourishing of the foresaid religion in T'ang added more fuel to that of incense culture in the Chinese nation.

The openness of sex culture brought about the inauguration of the empress, improvement in female position and free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woman. It was accelerated by sexology as a method of eternal youth provided by Taoism. The opened culture also developed the culture of kibang where female entertainers called kinyeo consumed lots of incense for decoration and sexual desire stimulation. These open climates of T'ang societ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making incense culture, especially for decoration, prevailed throughout the Chinese nation.

Second, types of incense prevailed and widely used in the period of T'ang included olive incense, germander(廣藿香), olibnum(乳香), myrrh Resinoid(沒藥), jia Xiang(甲香), clove(丁香) and Shen xian(沉香), all of which were imported from foreign nations and had various applications.

Specifically, olive incense, germander(廣藿香), olibnum(乳香) and myrrh Resinoid(沒藥) were used for religious purposes while, jia Xiang(甲香), clove(丁香) and Shen xian(沉香) for the purposes of religion and decoration.

In conclusion, a number of soci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religious and medical purposes and the openness of sex culture set fundamentals on which the culture of incense was extensively developed and established as a social trend in T'ang. In the Chinese nation, incense culture was not just an

option for taste, but a part of life style social members needed to know. People of T'ang not only enjoyed incense mainly for purposes of religion, pleasure and make-up, but also had the wisdom to know various effects of incense, curiosity about such new things and the will to imitate and pursue alien culture, resultantly flourishing incense culture. Thus the culture of incense represented many social aspects of T'ang.

Key Words: incense culture(향문화), the ritual of incense burning(분향의식), sex culture(성문화), religious purpose(종교용), the purpose of decoration(치장용)

I. 序論

香은 고대로부터 냄새를 통해서 개성과 매력을 높이려는 유희를 위한 미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냄새에 따라서 살균 및 진정작용, 혈액순환을 돕는 향도 있으므로 질병치료의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냄새를 감지하는 공간을 함께 나누는 향의 통합력은 宗教的 행사 및 儀禮의 식용 도구로서 쓰이기도 하는 등 향의 용도는 다양하게 이용 되어져 왔다.

唐代는 정치적 개방성으로 인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제적 문화, 물질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펼쳐졌던 시대로서, 長安에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陸上交易路는 실크가 주종을 이루었기에 絲綢之路라 불리었고, 玄宗대에 성시를 이루었던 廣州, 楊洲, 杭州 등의 항구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과 연결되어지는 海上交易路는 많은 交易品 중에서도 香料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였기에 이 해상교역을 가리켜 香料之路라고 불리었다고 한다¹⁾.

이 해상교역로가 향료지로라고 불리었다는 사실은 당대사회가 향 소비를 많이 하던 사회였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唐人들 뿐 아니라 당시 唐에 입국하는 사신들을 비롯한 외래방문자들은 향료를 朝貢禮物로 준비하기도 하고, 본국에 귀국할 시에도 당에서 성행하던 향을 구입하여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元開 <唐 大和上東征博>에는 日僧 鑑眞이 東渡時에 麝香, 沈香, 甲香, 甘松香, 安息香, 棧香, 乳頭香, 乳香을 준비하

였다²⁾는 기록을 볼 때 다양한 향이 당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입되는 향료 原產地를 보면 沈香은 天竺 暹于產, 龍腦香은 波斯 波津 渤泥 三佛齊 南天竺產, 安息香은 波斯 三佛齊產, 棧香은 占城產, 薰陸香은 天竺產, 乳頭香 乳香은 波斯產³⁾으로 세계 전 지역의 향들이 수입되고 있음으로 볼 때, 唐代 교역국의 범위는 세계적이었다는 것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수입된 향료는 효능별로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주로 宮中과 富貴人들의 奢侈用, 膳物用, 거리를 청결히 소독하기 위해 살포하고, 당대 성행하던 佛敎道敎는 香儀式이 필수였으므로 도교사원과 절의 종교행사에서 많이 소비되었으며, 教房 妓女, 軍에서 까지 향의식이⁴⁾ 유행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식에서 향이 소비되었다고 볼 때 당대 香文化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香은 당대뿐 아니라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사용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도 화장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향신료, 종교의식, 건축 인테리어 등에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불고 있는 웰빙 개념은 향을 대체의학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니, 광범위한 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향을 소비하고 있음을 볼 때, 향이 가지는 효능 외에 향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역시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수입이 많은 물량을 차지해서 香料之路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성행하던 당대의 향문화를 놓고 볼 때, 당대사회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의 唐사회의 문화와 당인들의 가치관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며, 또한 당대 많이 사용되었던 다양한 향의 종류와 효능고찰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잊혀지거나 사라진 향을 재발견하고 재활용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이루어진 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향

*Corresponding author ; Ae-Ryun Lee

Tel. +82-17-566-8383, Fax. +82-51-200-5661

E-mail : aeryun1113@hanmail.net

이 가지는 약리학적 효능과 특성상 약학, 한의학 등의 분야에서 향 성분을 분석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용학, 복식학 분야에서는 아로마, 즉 향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웰빙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연구방향은 주로 향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향 소비성행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 향문화의 성행을 부추기게 만든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당대의 향문화에 나타난唐人들의 사회상과 가치관을 재조명해 본다.

둘째, 문헌에 나타난 당대 많이 사용하던 향을 종류별로 살펴보고, 향의 원산지과 그 효능과 특징을 고찰하여, 당대 향 성행이 향의 효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당대 향문화를 성행하게 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당대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향을 종류별로 문헌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唐代 香文化 성행의 사회적 요인

617년 長安을 수도로 건국된 唐은 정치군사적 통일과 안정 속에서 大唐帝國을 이루었으며 중국 역사상 드물게 변명을 이루었던 시대로서, 그 요인을 정치적, 문화적, 물질적인 개방과 다양성을 수용한데서 찾고 있는데, 향문화는 향의 용도 및 특성상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의식과 치장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이장에서는 당대 사회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宗教와 性文化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宗教的 영향력

(1) 佛敎와 香文化

佛敎는 隋代부터 天台宗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 佛敎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는 三宗 중 華嚴宗, 禪宗이 당대 초기에 성립되었고, 이밖에도 道綽의

淨土宗, 道宣의 律宗, 玄奘의 法相宗, 善無畏의 眞言宗 등 많은 종파가 창시되거나 전래되었으며) 인도에서 많은 승려가 來到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에서 많은 高僧들도 배출하였으니, 당대 융성했던 불교는 중국적인 성격을 뛰어넘어 국제적 성격을 가진 宗教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唐代 불교의 발전 배경에는 황궁의 적극적 후원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의 시작은 太宗代 貞觀 22년(648년) 玄奘의 권유에 의해 京城과 諸州 寺刹의 각 5명, 玄奘이 머물던 弘福寺의 50명의 僧侶제가 시작으로서 僧官도 설치하고, 관직에 따라 福祿을 주는 불교의 제도화로 인해 太宗재위시 전국 3,716개 절의 18,500여명이 度僧⁶⁾하였다⁷⁾고 하니, 太宗의 불교정책이 불교 융성에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僧侶에도 차등이 있어 상층은 名公巨卿과 접촉하는 사문귀족, 보통은 僧侶, 최하위로 侍人, 淨人, 奴婢 등의 저급승려 등의 제도상 계층이 구별되며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였으며, 사문귀족들은 錦衣玉食의 생활은 물론, 도를 닦고 경전을 읽는 것을 모르는 승려가 있을 정도로⁷⁾ 사원의 계급화 세속화가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불교와 불교 관련 문화는 당대 사회 깊숙이 확산되어 갔다고 본다.

佛敎의 세속화제도화 현상은 당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玄奘이 인도 那爛寺에서 머무를 시 매일 20점시 반찬大人 쌀 1승 檳榔斗 龍腦香 乳酥密 등을 사문귀족으로부터 대접받았다⁸⁾는 기록은 인도 승려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물론 매일 龍腦香을 지급받을 정도로 향을 일상사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 향이란 일상화된 문화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같이 인도의 불교의식에 생활화된 향 문화는 불교의 전래와 융성으로 인해 당대 사회에서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고, 당대 불교와 향文化 성행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당대 禪詩人으로 유명한 寒山子는 당인들이 ‘절을 골라 좋은 향을 피우고 僧侶를 골라 공양 한다’ 하고, 부유한 승려들의 생활로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族姓의 집안을 꺾어 놓았네, 달콤한 말로 아부하고 아귀다툼을 벌였네. 하루 종일 도량에서 禮를 행하고 경전을 가지고 功課를 두었네. 향로

에 쬐음을 피우고 쬐음을 치니 큰소리가 어우러졌네' 9) 라는 詩句로 볼 때, 당인들의 삶에서 불교와 향의식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는 太宗이후 高宗, 武后, 中宗대에 이어지면서 황실입장과 정치적 차원의 후원을 받게 되니 황족과 귀족들도 다루어 믿었고, 특히 측천무후는 무씨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불교에서 찾았으며, 미륵보살이 여성군주로 환생하여 전 세계의 질병·근심·재난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예언서 <大運經>을 유포시켜¹⁰⁾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애쓰고, 승려를 道士보다 우위에 두는 勅命¹¹⁾을 내리며, 국가적 차원에서 佛事를 열고, 經典 번역을 지원하는 등 불교를 적극 후원하였다.

이는 측천무후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전통종교인 道教·儒教 등에서 비롯된 남성 위주의 家父長的 가치관은 여자가 천하를 지배 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여황제의 적법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불교 교리를 정치적으로 끌어와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천무후 이후 당대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玄宗代에도 불교의 황실옹호는 식지를 앓았으며, 佛敎國家儀式을 대규모로 열며 주요 國家祭禮를 법전화 하는데 불교의식을 도입하는 한편, 당시 새로운 종파로 성장하고 있던 密敎과 승려들과 친밀한 교섭을 가지며 외국인 승려들도 적극 도입하여, 726년 자바인 僧侶에게 가뭄을 피하는 密敎 儀式을 거행하게 하고, 742년 실론인 僧侶에게 唐軍의 승리를 위해 주술을 외우게 하고 玄宗은 향로를 들고 있기도¹²⁾ 하는 등,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황실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당대 불교는 절정을 맞으며, 焚香의식은 중요한 宗教儀式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불교에서 분향의식이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되는 점을 살펴보자면, 쬐음을 지칭하는 梵文의 gandha는 佛을 의미하고, 사원인 gandhakuti(香殿), 香搭, 香王, 香象 등은 보살을 지칭하는¹³⁾의 미로서 분향의식은 신의 명령을 받은 표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분향의식이 당대 皇帝의 위업을 표시하는 의식으로 인식되면서부터 더욱 중요한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宣宗代에 “焚香盥手”를 규정¹⁴⁾하

면서 쬐음이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면서 臣下 君主간 총애의 표시로 향료를 하사하기도 하였고, 張九齡이 唐 玄宗에게 감사의 표시로 쓴 <謝賜香藥面脂表>가 전형적인 예증¹⁵⁾이며, 科擧시험시 감독관과 수험생이 전당 앞 향안에서 향을 피우고¹⁶⁾ 예의를 갖추기도 하는 등, 향문화는 불교적인 종교의식을 뛰어 넘어서 신뢰와 충성, 의의 상징적인 예의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의 개방정책의 영향력을 받고 황실의 정치적인 목적과 부합하면서 비호를 받으며, 제도화 세속화된 외래종교인 불교는 당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焚香의식이 신의 명령을 받은 표시라는 인도의 불교의식에서 행해졌던 분향문화는 당대 皇帝의 위업을 표시하는 의식으로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면서 신뢰와 충성, 의의 상징적인 예의문화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분향의식은 불교의식을 뛰어 넘어서 전통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때, 당 사회전체로 확산된 佛敎의 대중화는 쬐음文化 대중화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道教와 쬐음文化

道教는 魏晉南北朝시기부터 성장해 온 종교이나, 唐代에 와서 조직화된 종교로 크게 성행하였으며, 唐代 道教가 성행하던 이면에는 佛敎와 마찬가지로 당황실의 정치적 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당대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관이 도교의 목적이념과 일치되어 더욱 성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자면, 唐초기 高祖 李淵은 이씨성의 老子인 태상노군의 후예를 자처하며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武德 8년에 내린 조서에는 유교와 도교가 조상들의 종교이고 불교는 후대에 중국으로 전래된 종교로서, 儒佛道중 道教가 첫째, 儒敎가 두 번째, 佛敎를 마지막¹⁷⁾으로 하여 도교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太宗 역시 貞觀11年(637년), 도교는 국가의 先宗이니 마땅히 불교보다 우선으로서 재차 도교를 숭상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황제를 알현할 때 도사들의 자리는 비구니들 앞에 오도록 하고,¹⁸⁾ 貞觀15年(641)에는 太宗이 弘福寺에 행차하여 승려

들을 불러 놓고 老子는 당조의 조상이므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道先佛後의 조칙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는¹⁹⁾ 등 高祖의 입장을 따르는 도교 우위정책을 펼쳐나갔다.

高宗대에는 麟德원년(664)에 老子像을 주조하여 몸소 공양하기도 하고, 老子에게 玄元皇帝라는 호를 추봉하고, 신하들에게 道德經을 외우게 하는 조칙²⁰⁾을 내렸으며, 明經舉人에도 이를 책문하게 하였고, 道士를 宗正寺에 예속시켜 제후·왕의 서열에 두는²¹⁾ 등 도교를 국교로 삼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中宗은 여러 주에 도관을 세우라는 조서를 내렸고, 睿宗은 서역과 융창 두 공주를 女冠이 되도록 하였다.

玄宗代(712-756)에 와서 도교는 더욱 성행하였는데, 長安과 洛陽 등 여러 주에 모두 玄元廟를 설치하고, 老子인 玄元皇帝에게 매년 관제를 행하였고, 노자의 道德經을 경전의 으뜸으로 삼아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추게 하고, 친히 道德經에 註解를 달고, 崇玄館에 崇玄學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道德經>·<莊子>·<列子> 등 도가의 典籍을 배우게 하고, 과거시험에서 명경과에 응시한 자는 道舉로, 합격자는 관리로 임명하는 등²²⁾ 도교는 최고의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도교에 대한 당황실의 정치적 비호는 당황실의 系譜와 관련 깊은 것으로서, 당조를 건립한 李氏 황실은 父系가 拓跋의 후예로서 漢族이 아니며 李淵의 妻는 鮮卑族이라는²³⁾ 사실로 인해 황실계보에 이의를 다는 세력과 향간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漢族인 老子를 자신들의 조상이라 칭하며 전면으로 내세우고 道敎를 옹호하게 되었으니,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한 도교우위정책으로 인해 당대 道敎는 매우 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의 성함은 이상과 같은 정치적인 옹호 외에도 당대 사람들의 가치추구가 도교의 종교적인 목적과 일치되어 더욱 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도교의 궁극적 목적을 보면 神仙이 되는 것이며, 계층도 상품, 중품, 하품 등으로 구분되어 상품은 노자의 無爲自然을 숭상하고, 중품은 不老長生을 추구하며 仙丹을 만들어 먹거나 丹田呼吸과 같은 수련을 하는 층이며, 하품은 符籙으로 재화를 막는 층이 있으니²⁴⁾, 永生不死, 不老長生을 꿈꾸던 당인들의 추구가 도교의 목적의식과 맞물리

면서 도교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대사회가 不老長生을 추구하던 이면을 보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당대 개방정책과 전 세계로 확대된 교역으로 인해 다양하고 풍요로우며 이질적인 물질이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는 당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이질문화의 명목적 개방과 추구현상은 기존의 유교사회의 전통과 문화는 사라지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면서 現世的, 世俗의 추구가 당대의 시대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속적 현세적 욕망으로 채울 수 없었던 절대적인 價値觀 不在와 정신적 공허감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세속을 잊고 다른 삶을 동경하고 집착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갈등하는 당인들에게 불로장생, 영생불사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道敎는 많은 위안을 주는 종교였다고 볼 수 있다.

도교의 現世 문제 해결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道敎를 믿고 재를 올리며 신에게 籙文과 香을 피워 혼령을 평안케 해줌으로써 五帝와 地神의 보호를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²⁵⁾고 제시하면서, 불로장생의 구체적인 방법이 演壇術적인 약물제조와 약물복용으로 이어지게 되며, 불로장생약을 제조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의료용 香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애착심, 죽음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갈등하는 당인들에게 불로장생에 대한 맹신은 당대 향소비 성행에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香은 라틴어의 perfumum (through smoke)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당인들은 향을 복용하기도 하였지만 향을 태우기도 하였는데, 상류층들은 정원과 주택, 사당 등에 향을 피움으로서 香과 연기가 자욱하여, 마치 道敎의 天上世界 같은 환경 속에 거주하기를 즐겨하였고, 몸에 지닌 향주머니로 인해 온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기도 하였다고 하니²⁶⁾, 당대 도교의 성행이 향문화 성행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道敎儀式에 쓰인 대표적 香으로는 紫藤香, 降眞香으로 降眞香의 '眞'은 이슬을 먹고 氣를 회복한다는 不老長生の 神仙儀式을 말하고 있으며, <本草綱目>에는 자등향을 피워 귀신을 몰아내고

뉘를 피하며, 아이들에게 자등향을 몸에 지니게 함으로서 뉘를 물리칠 수 있다고²⁷⁾ 하니, 자등향이 逐鬼의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도교에서 주로 쓰이던 향은 먹고 피우고 몸에 지니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대 도교의 성행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당황실의 정치적 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또한 이질적이며 풍부했던 물질문화로 인해 당대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던 현세적, 세속적 추구는 정신적 공허감으로 이어지면서, 더 나은 삶을 동경하고 집착하는 이상적 가치관은 영생불사, 불로장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들어오는 도교의 추구목적과방법이 당인들의 추구하고 일치되면서 환경을 바꾸고 불로장생약을 제조하는데 향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당대 향문화 성행은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性文化의 개방성

性文化는 성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의식, 사회제도 등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풍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대 성문화를 살펴보기 이전 당대 대표적인 宗教였던 儒佛道는 각 종교의 추구목적에 따라 영역별로 쓰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적인 영역의 정치부분에는 儒敎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나, 사적인 삶에서는 道敎 佛敎가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자유분방하고 개방된 당대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여성들의 활동영역도 넓혀 주는 한편 유교적인 男女差別儀式에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道敎에서 여성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당대 官設道館 1,687개소 중 550개소가 女道士館²⁸⁾이었고, 女道士라는 여성 사제의 등장 이 성차의식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역사상 前無後無한 여황제 측천무후가 당대에 있었다는 사실은 의식이 변화된 唐의 사회분위기를 알 수 있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당대에 앞서 前代인 魏晉南北朝期의 여성들의 삶을 보자면, 전통 유교적 관념에서 비롯된 男尊女卑의식이 강하여서 蓄妾풍습의 성행은 물론, 여성의 지위나 제도도 매우 열악하였고 敎訓書, 烈

女專 등의 기록도 많은 것으로 유교적 규범이 여성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던 시대였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부녀자들의 생활을 가리켜서 狎玩, 押弄, 玩弄²⁹⁾이라 일컬은 것은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대의 사회가 유교적 남녀 의식의 가치관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여성들의 정조정절이 기록된 <古今圖書集成>에 당대의 烈女, 貞節女로 기록된 자 51인, 宋代 267인, 明代 36,000인³⁰⁾으로서, 당대 烈女の 수는 宋明代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로서, 宋明代가 추구하던 정치적 근본이 儒敎文化였음을 놓고 볼 때, 당대의 유교는 정치적 근본을 이루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나, 사회제도 및 가치관, 유교적 남녀성차의식에는 별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대의 法畵에서도 나타나는 바, 唐 高祖 武德7년에 내린 규정에는³¹⁾ 남녀가 인간으로 동등하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開元25년에 내린 법령에는³²⁾ 賤男이 良女와 관계시 출생한 자녀의 귀속에 있어서 그 자녀의 원에 따라 여자에게 돌릴 수 있으며, 唐六典에도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여자의 婚姻에 있어서 부모 주관 하에 通婚을 자유롭게 하는 법규를 제정하였고³³⁾, 財產繼承權에 있어서도, 여성에게 繼承權이 인정되었다³⁴⁾는 것은 당대 법령이 남성중심의 편중된 법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舊唐書 卷 45 輿服志에는 ‘婦人宴服準畵各依夫色’, 唐六典 卷 18 司儀令條에는 ‘婦人有官品者亦以其服畵’은 부인들의 服飾을 남성복식과 같이 규격화시키며, 황족여성에 대한 관품 규정과 더불어 귀족여성에게도 관품이 수여된 것과, 남세의 의무에서도 寡妻, 妾, 女冠, 女僧, 烈女, 孝女등은 감세의 특혜를 받았던 것은³⁵⁾ 결결 과적으로, 당대의 일반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주변의 鮮卑, 突厥, 吐渾, 黨項羌 등 소수민족들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고, 자유로웠던 것을 볼 때, 당 황실이 遊牧民族 系譜였다는 것과, 당이 취했던 서역과 소수 민족들과의 다양한 문화 교류 및 개방정책은 유교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방적 생활을 唐의

여자들에게도 허용하게 되었으며, 공개적인 남녀 접촉 기회도 많아져 서로 담소하고, 書信 詩文 등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고, 여성이 주동적으로 求愛하기도 하고, 정조관도 투철하지 않았던 사회분위에서 유교문화를 지향한 宋明代에 비해 열녀수가 적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의 장생비법에서 비롯된 鍊金術, 不老長生術, 房中術은 일반서민생활에도 자리를 잡아, 방중술에 관한 〈序房內秘術〉, 〈素女秘道經〉, 〈玄女經〉, 〈玉房秘訣〉 등의 책들이 정리되어지고³⁶⁾, 이 뿐 아니라 당대 변화한 상업도시 출현은 시민 소비계층이 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방중하며 향락적인 娛樂을 추구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들을 相應하는 술집과 妓房도 대거 생겨나게 되었다.

기방은 시민계층 뿐 아니라 이후 문인과 사대부 계층의 연회자리로도 활용되면서, 飲酒歌舞와 다양한 技藝와 娛樂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면서 이에 종사하는 妓女도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³⁷⁾, 당대 사회에서 사대부 문인은 물론 상인 부호나 관료들이 妓館을 출입하거나 연회에 妓女를 불러서 즐기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또한 仕途에 들어선 이후에는 임자마다 官妓나 營妓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蓄妓도 보편적이어서 〈唐會要〉에는 三品이상은 女樂 一部를 허락하고, 五品이상은 女樂이 3명을 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으며³⁸⁾, 玄宗은 天寶10年(751), 五品이상 正官員과 諸道の 節度使 및 太守등은 집에 絲竹 藝人을 양성하여 歡娛를 펼칠 수 있도록 허락³⁹⁾하여 귀족관료들의 蓄妓를 법으로 보증해주었고, 蓄妓制度的 관례는 귀족관료 뿐만 아니라 官品이 없는 문인이나 富商, 지주 호족 등에까지 확산되었다고 한다.

〈開元遺事〉에 보면, 진사들이 기녀들과 수레를 타고 名勝地와 曲江을 찾아다니며 노는데, 관모를 벗고 나체로 기녀들과 퐁구는 이른바 ‘癡飲’⁴⁰⁾ 같은 극단적 퇴폐행위를 즐겼다는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 높여 졌던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 노리개 대상이 되었다 함은 당대사회의 모순된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풍족과 정치적 안정에 따라서

성문화의 개방의식은 당대 전 사회에 만연된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왕도 궁궐에서 歌舞女色을 즐기고, 문무백관, 귀족부호들도 기녀를 私邸에 두고 妓房에서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분위에서, 당대의 기녀들은 官妓이건 私妓이건 몸치장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며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출현하면 즉시 모방하여 유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당대 妓房문화의 발달이 향문화의 성행을 부추기게 되었다고 보는데, 당대의 周光錄은 기녀들에게 머리에 鬱金香을 바르도록 하고, 얼굴에는 용소분을 바르고 옷에는 향을 뿌리도록 하였으며, 鄭注은 백여명의 妓妾에게 麝香을 뿌려 향기가 몇 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까지 맡도록 하였다고 전해지며⁴¹⁾, 특히 당대 妓女들이 사용하던 향은 性慾을 자극하는 香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8세기 長安의 蓮香이라는 기녀는 외출시 뿌린 香에 벌과 나비들이 따라 다녔고宰相 元載의 기녀는 어릴 때부터 香을 먹어 몸에서 향이 발산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香肌는 당대 귀부인들이 추구하는 理想이기도 하였다고 한다⁴²⁾.

이와 같이 당인들의 개방의식은 성문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며, 남성중심의 유교적인 사회제도, 남녀의식에서 수동 예측적이던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남녀교제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여황제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위해 제시된 鍊金術, 不老長生術, 房中術 등이 性文化의 개방을 부추기고 기방문화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기녀들 중심으로 향문화는 더욱 성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성문화의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는 치장용 향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시켜나가는데 많은 요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당대에 성행한 香의 종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香은 다양한 용도로 唐人들의 생활 깊숙하게 파고 든 生活用品이자 嗜好品으로서, 이 장에서는 당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향을 몇 가지 선택하여 그 향의 특징,

효능 및 원산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欖香

欖香은 橄欖屬의 열대식물에서 추출된 수지인 欖脂를 가리키는데 ‘詹糖香’, ‘欖香’, ‘欖脂’ 또는 ‘欖糖’이라고도 불리며, 생산지에 따라 사용도가 다양함을 볼 수 있는데, 남부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감람수지는 주로 배를 만드는데 도로로 사용되었고, 詹糖香은 조공품 또는 수입 감람으로서 神壇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였다⁴³고 한다.

〈本草綱目〉에 소개된 橄欖의 명칭과 효능을 보면, “釋名에는 ‘詹은 黏으로, 糖은 그 상태를 말한다.’ ” 하며, 詹은 ‘tram’ 으로서 tram은 안남어인 ‘kanari’ 의 讀音이라고 하니 欖糖향의 명칭으로 볼 때 생산지와 수입국이 주로 동남아시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蘇恭은 ‘詹糖樹는 굴나무와 비슷하고, 줄기와 잎을 끊어서 향으로 사용하며, 사탕과 비슷한 黑色을 띠고, 말리화 향기와 같다⁴⁴.’ ” 하고, “弘景은 ‘欖糖향은 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울 때도 쓰인다⁴⁵.’ ” 고 하며, 치료 효능은 ‘시체의 나쁜 냄새를 없애고, 別錄에는 약학과 약창을 다스리는데 사용되었다⁴⁶.’ ” 고 전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후한 말에 저술된 釋名에도 감람향이 기록되어있을 뿐 아니라, 당대 약물학자인 蘇恭은 감람향의 특징과 추출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음을 볼 때, 중국에서는 당대이전부터 감람향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질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대에는 국제무역의 성행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양의 감람이 중국으로 반입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감람의 용도가 배 제조용인 공업용 안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대 해상무역의 발달은 당에서도 배를 건조하는 조선업의 성행과 발달을 가져왔을 터인즉, 중국 내에서도 많은 양의 중국산 감람 수지가 생산되어 배의 도로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향을 피우는데 사용되어 나쁜 냄새를 없애고 풍기를 다스려 주던 수입산 감람향은 도교 불교의 향의식 성행과 함께 당대

일반적으로 널리 소비되던 향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2) 廣藿香

廣藿香은 곽향인데 말레이에서 생산되는 黑油 형태의 薄荷의 일종으로, 그 명칭을 보면 古代 서역에서는 이 검은 기름을 ‘malabathron’ 또는 ‘phylon Indikon’ (天竺叶)이라고 불렀고, 곽향의 梵文은 ‘tamalapattra’이고, 英文에는 ‘patchouli’ (藿香)라 불리며, patchouli는 인도 남부지역인 泰米語의 paccilai(녹색잎)를 뜻한다⁴⁷) 하니, 향의 명칭으로 볼 때 인도가 주 생산지였고, 당대에 사용되던 곽향은 주로 인도에서 수입된 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곽향의 명칭에 대한 것을 좀더 보자면, 〈本草綱目〉에 ‘時珍이 이르기를, 콩잎을 藿이라고 말하는 데, 곽향의 잎이 콩잎과 흡사하여 곽향이라 불린다.’ 고 하니, 한자어인 곽향은 식물의 외형에서 얻어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고, 釋名에 ‘곽향은 兜婁婆香이다’ 하니 兜婁는 범어로서, 楞嚴經에는 ‘제단 앞에서 兜婁婆香을 끊이고 몸을 씻는다.’ 고 하며, 法華經에서는 ‘多摩羅跋香’, 金光明經에는 ‘鉢但羅香’ 라 칭하는⁴⁸) 향을 곽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곽향은 람향과 마찬가지로 당대이전부터 중국에 알려진 향으로서, 특히 당대 인도에서 들어 온 密敎의 경전인 능엄경 등을 비롯한 불교경전에서 곽향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두루파향을 끊어서 佛敎儀式의 중요의식 중 하나인 부처상을 목욕시킬 때 성수의 배합재료로 사용 하였는데⁴⁹), 釋名에 기록된 것처럼 당대 승려들도 이 의식을 아서 두루파향인 곽향으로 목욕을 했다고 하니, 곽향이 불교의식과 관련 깊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당대는 불교가 매우 성행하던 시대로서, 인도의 불교와 의식이 더욱 활발하게 전래되기도 하였고, 승려의 제도화로 인한 불교의 대중화 세속화는 향문화를 대중 깊숙이 확산시켜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향이었으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당대 곽향은 타밀어의 paccilai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의 남부에 위치한 생산지 頓遜國산 곽향이

주로 수입되었다고 하며, 11C에 와서는 중국의 영남지방에서도 곽향을 심었고, 오늘날에는 광주지역에서 곽향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本草綱目〉에 기록된 곽향의 치료 효능을 보면, 나쁜 기운을 없애고, 토사곽란과 심복통을 그치게 하며, 음주와 구취에 끓여서 입을 행군다⁵⁰⁾고 하니, 곽향의 치료효능이 광범위하여 의료용으로도 넓게 사용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고, 佛敎에서 승려들이 곽향으로 몸을 씻는 종교의식은 宗教儀禮이지만 곽향의 의료적 효능을 알고 있었던 승려들에 의해서 몸을 정결히 할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식으로 진전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당대 인도에서 수입된 곽향은 불교의 성행과 함께 종교용이자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대중적인 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乳香

frankincense(乳香) 또는 olibanum은 일종의 아랍지방이나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 수지로 두 가지 名稱이 있는데 梵文의 'kunduruka(francincinse)'에서 유래된 '薰陸'과, 유방모양의 형태를 형용한 '乳香'(teat aromatic)으로 불리고 있다. 乳香, 沒藥, 蓬香脂와 같은 종류의 甲香 등은 고대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에 사용하던 향을 만들 때에 배합하던 원료로서⁵¹⁾,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시 박시 박사 3인이 들고 온 예물에 황금과 乳香과 沒藥이 있었는데⁵²⁾, 당시 유향은 예배의식과 예물로 바쳐지는 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本草綱目〉에는 “釋名에 宗奭이 말하기를, ‘薰陸은 바로 유향인데,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진액이 乳頭와 같으며, 그 진액이 흘러나와 굳어진 것을 塌香 이라고 불리니, 유향과 탐향은 모두 하나다.’ 라고 전하는 것은, 혼육은 유향이고, 탐향 역시 유향이며, ‘불교 경전에서는 天澤香이라 하고, 多伽羅香, 杜魯香 이라고 한다⁵³⁾.’ ” 고 하니, 유향이 혼육, 탐향, 다가라향, 두로향 등 다양하게 불릴 뿐 아니라 성경과 불교경전에서도 거론됨을 볼 때 고대부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향임을 알 수 있다.

乳香은 나무줄기에 상처를 내서 흘러나오는 진

액을 채취하며, 지역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른데, 〈本草綱目〉에 기록된 唐人 蘇恭의 기록을 보면 ‘天竺에서 생산되는 유향은 흰색이며, 單于(흉노)에서 생산되는 유향은 녹색이 섞여 있고, 향기가 진하지 않다.’ 고 하며, 당대 약물학자인 李珣은 ‘유향은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주 빛처럼 붉고 앵두같이 투명한 것은 상품으로 친다⁵⁴⁾.’ 고 하니, 지역에 따라 유향의 특징이 흰색, 녹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급품은 페르시아산 유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향의 사용용도를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데 방부제로 사용하였으며, 당대에는 그림을 표구할 때 유향과 반죽한 풀을 사용하면 촉자가 질기고 튼튼할 뿐 아니라, 좀벌레도 막을 수 있었다⁵⁵⁾고 하니, 이집트의 미라나, 당대 회화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유향이 지닌 살균력과 방충성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本草綱目〉에 기록된 유향의 주요 치료 기능을 보면 ‘혼육인 유향은 풍수와 악성종기를 다스리며, 나쁜 기운과 시신의 나쁜 냄새를 없애고, 두드러기, 가려움증, 부스럼, 토사곽란, 지사, 콩팥 치료, 생리통, 혈액순환, 귀머거리, 중풍, 말더듬이, 병어리 등에도 효능이 있으며, 道敎에서는 仙方의 비술로 복용하였다고⁵⁶⁾’ 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향이 당대 약물학자들에 의해 자세하게 소개된 것으로 그 의료적 효능성이 다양하여 외상에 대한 살균, 소염, 악취제거, 피부염에 바르기도 하고, 내복약으로 복용하여 내과 부인과 신경계통에 이르기까지 만병통치약처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고, 도교의 비술로도 사용되었음을 볼 때, 당대 성행한 도교의 추구목적과 방법이 유향의 소비를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沒藥

沒藥(Myrrh Resinoid)은 乳香과 같이 동아프리카와 아랍지방에서 생산된 나무 樹脂로 암홍색의 향료인데, 방부성, 살균성이 강한 향료로서, 釋名에는 末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本草綱目〉에서

時珍은 말하기를, 沒과 末은 梵言이며, 파사국의 產品으로 덩어리의 크고 적음이 일정치 않고 흑색을 띠고, 安息齋과 흡사하다고 하며, 一統志에는, 몰약 나무는 높고, 크기가 소나무와 같으며, 나무 껍질이 1.2寸으로, 채집할 때에는 나무 밑을 파서 구멍이를 만들어 도끼로 껍질을 잘라내면 수지가 구멍이로 흘러내려 십 여일 후에 채취 한다⁵⁷⁾고 전하고 있다.

앞의 유향에서 살펴본 내용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예수 탄생시 동방박사 3인이 가지고 온 예물로 유향과 몰약이 있었으며, 예수의 장례시 니고데모가 몰약과 沈香 섞은 것을 백근(75파운드)쯤 가지고 왔다고⁵⁸⁾ 함을 볼 때, 고대부터 근동지방에서는 몰약이 종교용, 장례용의 귀한 향으로 쓰여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에 沒藥에 대한 기록을 보면, 時珍은 ‘李珣이 말하기를 유향이 곧 파사 송지이고, 몰약이 송지다. 라고 말했는데 몰약이 송지라는 것을 잘못들은 것이며, 몰약이 실제로 어떤 물건인지 알지를 못 한다⁵⁹⁾.’ 고 하니 明代까지도 몰약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며, 몰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른 채, 주로 몰약의 효능을 알고 있는 당대 藥劑士들⁶⁰⁾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에 기록된 몰약에 대한 효능을 보면, ‘沒藥은 쓰지만, 독성이 없고’, 치료 효능을 보면, ‘출혈을 멈추고, 통증을 그치게 하며, 金瘡과 杖瘡를 비롯한 모든 惡瘡, 치질, 하열을 멈추게 하고,’ 發明의 기록에서도 ‘창갈로 인한 상처, 어깨, 발목을 다쳤거나, 낙마로 인한 근육이 통증에 쓰이며, 心腹痛과 瘀血에는 몰약을 분말상태로 갈아 뜨거운 술에 타서 복용하여 치료했다⁶¹⁾’ 고 하니, 당대의 몰약은 진통제 및 피가 멎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대에 李珣이 유향과 몰약이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자면, 乳香은 피를 활발하게 하며, 沒藥은 피를 흡수하게 하고, 두 향 모두 통증, 종기,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므로 두 향을 곁해 사용하니⁶²⁾, 몰약유향이 相互補完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색깔도 유향은 자주색, 몰약은 암홍색으로 유사색을 띠우고 있음을 볼 때, 당대에 李珣이 유

향은 파사 송지고 몰약이 송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두 향의 상호보완적인 效能性, 類似性으로 인한 착오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5) 甲香

長江以南 중국연해 지역에는 腹足綱⁶³⁾이라는 연체동물의 조개껍질인 厝이 있는데, 중국산 甲香은 이 연체동물에서 얻어진 芳香劑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安南의 陸州의 토산품이 조공품으로 전해진 것도 있으니, 唐代的 갑향은 중국산과 외래품의 두 종류가 있었다.

甲香이라는 명칭은 조개껍질인 厝의 외형적 특징에서 비롯되었으며, 檀香과 麝香 등 다른 향료와 배합되어 焚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배합된 焚香을 ‘甲煎香’이라 하는데, 全唐詩에 보면 隋의 楊帝는 일반 장작을 태우는 것처럼 궁정의 院內에서 갑전향을 태웠다⁶⁴⁾고 하니, 당대 이전인 隋代에도 갑전향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전향의 용도를 보면 종교의식에 쓰이는 焚香 이외에도 여성용 화장품의 필수품인 口脂를 만드는데 배합하여 쓰기도 한 것으로, 〈本草綱目〉에 보면 明代의 약물학자인 藏器는 말하기를 ‘甲煎香은 밀랍, 향과, 꽃의 재 등과 혼합하여 부녀자의 미용품인 口脂를 만들었다⁶⁵⁾.’ 고 한다.

당대에는 얼굴 입술 등을 붉게 化粧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특히 点唇이라는 입술화장이 있어서 주로 脣脂나 口脂를 사용하여 입술을 물들었는데, 脣脂는 脣膏라고도 하는 紅色油脂로서 朱砂에 기름을 혼합해 만들며, 口脂는 油膏로서, 일반적으로 動物油, 鑛物蠟에 각종 향료를 배합하여 만들었다⁶⁶⁾고 한다.

이에 口脂를 좀더 살펴보자면, 唐의 〈鶯鶯傳〉에는 崔鶯鶯이 張生이 보내 준 장식품을 받고 매우 감동해서 張生에게 답장을 보낸 글에 ‘兼惠花勝一合 口脂五寸 致耀首膏脣之飾’는 말에 口脂가 언급되는데 당대의 口脂가 5寸 길이로서 그 형태가 현대 립스틱과 거의비슷한 원통형의 관 모양으로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明代의 口脂가 명대의 産物이라기보다는 당대의 口脂 형태와 별반 다름없이 계승되어온 형태라고 볼 때, 明代의 口脂에 갑전향을 배합하

여 만들었다면, 당대에도 갑전향이 종교용 뿐 아니라 口脂를 만드는데도 배합 향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갑전향은 종교용 치장용으로 사용되었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6) 丁香

丁香은 釋名에 보면 丁子香, 嘉佑. 鷄舌香이라는 여러 명칭이 있으며, 현대에서는 정향으로 불리고 있는데,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은 꽃봉오리 형태가 못처럼 생기고 향기가 있어 정향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보며, 英語로는 ‘clove’ 로 이 또한 외형에서 나온 지칭으로 clove란 라틴어의 ‘clavis’ ‘clou’ 인 못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된 명칭으로⁶⁷⁾ 동서양이 같은 시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에 보면 당대의 恭은 정향에 대해 말하기를 ‘鷄舌香은 잎과 껍질은 밤나무와 같고, 꽃은 매화 같으며, 열매는 대추씨와 같다’ 고 하였고, 李珣은 ‘이월 삼월에 紫白色의 꽃을 피우고 칠월에야 열매가 나오는데, 정향은 東海와 崑崙國에서 나온다⁶⁸⁾.’ 고 하니, 정향은 중국이 원산지가 아니고 수입 향이며, 唐人들은 정향을 焚香의 배합재료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향의 효능을 〈本草綱目〉에서 보면, 藏器는 ‘鷄舌香의 즈름 바르면, 백발을 없애고 동공이상에 좋다.’ 고 하며, ‘옷에 향기를 나게 하고 땀 냄새를 제거하며, 정향 가루 한 兩과 川椒 60알을 絹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서 차고 다니면, 땀 냄새가 절대 안 난다.’ 고 하고, 李珣은 ‘살충, 악기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앨 뿐 아니라, 정향의 주 치료 기능으로 정향 껍질이 치통치료⁶⁹⁾ 에 효능이 있다고 전하고 있으니, 현대의학에서도 정향은 치과용 방부약, 국소마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당대 정향은 그 향과 효능이 뛰어나 종교용, 의료용, 치장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7) 沉香

沉香은 阿迦嚩(Agaru)라고 불리는데, 阿迦嚩(Agaru)는 당대 특별히 선호하던 香材의 梵어로

서, 영어의 ‘garroo (무역어로沉香)’, ‘aloes’, ‘eaglewood’, ‘agalloch’, 말레이시아어의 ‘gahru’, 히브리어의 ‘ahaloth’, 포르투갈어 ‘aguila’ 등 침향을 말하며, 이는 모두 東南亞産의 沉香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產品들을 가리키고 있다.

침향의 명칭을 좀더 보자면, 釋名에는 ‘沈水香’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향나무의 중심 부분을 물에 넣으면 바로 침몰되므로 沈水라고 하며 水沈이라고도 한다.’ 고 하며, 당대 사용된 침향의 원산지는 대부분 지금의 베트남 지역의 林邑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林邑인들이 침향 만드는 방법이 ‘나무를 베어서 수년간 쌓아두었더니 저절로 썩어, 마디가 끊어져서 물에 가라앉으므로 沉香이라 한다.’ 고 하고, 〈本草綱目〉에서 時珍도 말하기를 ‘반 정도 가라앉아 있는 것은 棧香, 가라앉지 않은 것은 黃熟香이다⁷⁰⁾.’ 고 전하는 것으로 침향의 명칭은 썩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침향의 질은 다양한 것으로, 〈本草綱目〉에 보면, ‘무겁고 물에 가라앉으면 上品이고 반 정도 가라앉으면 질이 떨어진다.’ 고 하는데, 침향의 품질은 수지의 함유량이 그 질을 좌우하게 되고, ‘침수, 반침수에 따라 정한다⁷¹⁾.’ 고 한다.

恭은 ‘나무결의 검은 줄기가 있고, 꽃였을 때 떠오르는 향은 煎香으로, 鷄骨, 馬蹄는 모두 煎香이다⁷²⁾.’ 즉, 鷄骨은 半浮半沈한 침향을 말하며, 뿌리와 마디가 가볍고 큰 것은 馬蹄香으로서⁷³⁾ 모두 값싼 향으로서 焚香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밖에 향의 色彩, 香氣, 重量, 크기 순으로 등급을 정하는데, 녹·자색이 흑색보다 上品이고, 태울 때 향기가 진하고 부드럽우며 五味가 풍부할수록 上品에 속한다⁷⁴⁾고 전하고 있다.

이밖에 침향이 생산되는 원산지는 林邑 외에도 天竺産⁷⁵⁾이 있었으며, 인도에서도 침향은 焚香과 薰香에 사용하였고, 당에 수입된 침향 역시 佛教와 道教의 焚香儀式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침향을 조제해서 만든 향은 妓女들의 옷에 향을 뿌리거나 실내에서 향을 태움으로 인해 향이 옷에 배이게도 하였으니, 妓女の 직업상 성격으로 볼 때 남자들의 관능을 자극하는 용도로 침향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沉香木은 붓을 만들기도 하였고, 침향을 분말로 만들어 다른 안료와 섞어서 칠함으로서 향기를 내게도 하였으며, 唐 玄宗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沉香亭을 세웠는데, 玄宗 보다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축물은 양귀비의 오빠인 楊國忠이 세운 沉香亭이었다고 한다⁷⁶⁾.

침향의 효능을 보면, 氣의 순환을 돕고, 血을 뚫으며, 陽氣를 강화하고 風을 제거 한다⁷⁷⁾고 하는데, 〈本草綱目〉에 보면, 침향의 치료효능은 ‘풍수독종, 주심복통, 곽란, 구역질, 귀신을 물리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여러 가지 악창, 내장을 보호하고, 체증, 류머티즘, 구토, 피부 가려움증, 설사 이질⁷⁸⁾.’ 등에 효능이 있으니, 수입된 침향은 바르고, 불사르고, 뿌리는 것 뿐 아니라, 복용도 하는 등 침향은 쯤의 대표적인 향으로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대에 焚香과 薰香이 성행하였다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향의 효능이 다양함을 알았던 당인들이 청결과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였고, 좋은 향기를 지니기 위한 치장도 겸한 목적이 복합된 향문화로서, 현세적이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이질문화의 모방과 추구는 당대의 사회현상으로 향문화의 성행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본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당대 중국의 남쪽 해로무역로를 香料之路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양을 수입 유통시키고 소비해나가던 당대사회의 향문화를 당대 사회배경 속에서 향문화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과, 그 시대 성행한 향의 종류를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 향문화를 성행하게 만든 사회적 요인은 종교적 영향력과 성문화의 개방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종교적 영향력을 보자면, 당대 주 종교였던 불교와 도교는 황실의 정치적인 비호로 제도화 세속화되어가면서 사회 전제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불교의 경우 인도의 불교의식인 焚香의식이 당에 수입되어서,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게

되고 신뢰와 충성, 의의 상징적인 예의문화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니, 불교의 분향의식이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당대 향문화 대중화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황실의 정치적 후원으로 사회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도교는, 인생문제해결 방법으로 영생불사, 불로장생을 제시하고, 불로장생약을 제조하는데 향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도교적 환경조성에 향은 필수였다고 볼 때, 당대 도교의 성함이 향문화 성행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대 성문화를 보자면, 전대와는 다르게 여황제가 나타날 정도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교제도 자유로웠지만, 도교의 不老長生術의 방법으로 제시된 房中術 등이 성문화의 개방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妓房文化가 발달하게 되고 기녀들 중심으로 치장용과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향소비가 많았으니, 성문화의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는 치장용 향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시켜나가는데 많은 요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당대 성행하던 향의 종류는 많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헌에서 많이 언급된 것들을 종류별로 살펴볼 때 람향, 광곽향, 유향, 몰약, 갑향, 정향, 침향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향들은 당대이전부터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향으로서 당대에는 향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많은 양의 향이 모두 외국에서 수입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향의 용도도 종교적 용도, 치료의 목적, 치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며, 종교용으로 사용된 향은, 람향, 유향, 몰약, 종교용과 치장용으로 사용된 향은 갑향과 정향, 침향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대의 향문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는 정치적·종교적·의료적·성문화 등 사회의 모든 요인이 향문화 성행에 바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당대사회에서 향문화는 기호품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익혀야 할 생활양식의 일부로서, 唐人들이 향을 즐겼던 것은 종교적 쾌락적 치장용 뿐 아니라 향 효능의 다양함을 알았던 당인들의 지혜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이질문화의 모방과 추구가 향문화의 성행을 부추기었다고 볼 때, 향문화는 당 사회의

많은 이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한편 당대에 많이 사용되던 향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사용되어왔고 현대사회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향도 있으니, 전대 생활 속에 숨어있던 여러 용도의 향들을 현대사회에 알리고 현대과학에 접목시켜나가는 작업을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管士光 (1992). *唐人大有胡氣*. 農村讀物出版社, p.15.
- 2) 金奎皓 (1986). 唐代的 異民族活動과 그 對策.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94.
- 3) 本草綱目. 卷 34.
- 4) 岸邊成雄 著, 천이두 編 (1985). *중국여성의 성과 예술*. 일월서각, p.169.
- 5) 金明姬 (1998). *中國 隋唐史 研究*. 國學資料院, p.239.
- 6) 佛祖統紀. 卷 39.
- 7) 黃敏枝著, 임대희 譯 (2002). *중국 역사상의 불교와 경제 -당대편-*. 서경문화사, pp.219-221.
- 8) 續高僧傳. 卷 4, 玄奘傳.
- 9) 黃敏枝 著, 임대희 譯 (2002). Op. cit., pp.226-227.
- 10) 宮崎市定 著, 任仲燊, 朴善姬 譯 (1996). *中國 中世史*. 신서원, p.292.
- 11) 배진달 (2003). *당대 불교 조각*. 일지사, p.22.
- 12) 패트리샤버클리 에브리 著, 이동진, 윤미경 譯 (2001).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p.133.
- 13) 謝弗著, 吳玉貴譯 (1995). *唐代的外來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p.344.
- 14) 舊唐書. 卷 18.
- 15) 全唐文. 卷 288.
- 16)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42.
- 17) 정재서 (1994).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p.109.
- 18) 唐會要. “帝幸洛京, 下詔曰 老君垂範, 義在清虛, 釋迦則貽, 理存因果, 求其教也, 汲引之迹殊道, 其宗也, 弘益之風各致, 然大道之興, 肇于邃古, 源出無名之始, 事高有形之外, 況國家先宗, 宜居釋氏之右, 自今已後, 齋供行位, 至於稱謂, 道士女冠, 可在僧尼之前, 庶敦返本之俗, 暢於九月, 貽於萬葉.”
- 19) 배진달 (2003). Op. cit., pp.19-20.
- 20) 久保田量遠 著, 최춘식 譯 (1990). *中國儒佛道三教의 만남*. 민족사, p.163.
- 21) 정법진 (1994). 당대소설과 도교와의 관계 -배형의 전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51.
- 22) 森三樹三郎 著, 임병덕 譯 (1986). *중국 사상사*. 온누리, p.197.
- 23) 管士光 (1992). *唐人大有胡氣*. 農村讀物出版社, pp.39-40. ‘據說有一个叫法琳的和尙對唐太宗說:你這個"李"姓, 不是隴西漢族的那個李姓, 而是拓撥達闐的那個"李", 達闐就是漢語的李字° 你是鮮卑的達闐° 你否 認自己是鮮卑的后代, 硬說是隴西李氏, 這是沒有根據的° 唐太宗一听十分生气, 把這個和尙關了起來, 準備殺頭° 他對和尙說:"你們佛經上講, 有菩薩保佑, 刀落在頭上, 也死不了° 我給你七天去念觀音菩薩, 到時候用你 的頭來試試菩薩灵不灵° "這個和尙在下次見太宗時識趣地改了口, 這才保住了一條命° 李氏統治者的母系多爲 獨孤氏, 竇氏, 長孫氏, 如唐太宗的母親竇太后, 唐太宗的皇后長孫氏, 明顯的不是漢族° 因此至高祖時, 家中還有辮發的北族旧習° ’
- 24) 김원중 (1998). *중국 문화의 이해*. 을유문화사, p.186.
- 25) 葛兆光著, 沈揆昊 譯 (1993). *道教와 中國文化*. 東文選, p.217.
- 26)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p.341-342.
- 27) 本草綱目. 卷 34. ‘宅舍怪异, 小儿帶之, 辟邪惡气° ’
- 28) 岸邊成雄 著, 천이두 編 (1985). Op. cit., p.215.
- 29) 陳東原 (中華民國59年). *中國婦女生活史*. 臺灣:商務印書館 第3版, pp.60-70.
- 30) 성균관대 동아시아유교문화권 교육, 연구단편 (2004). *동아시아와 근대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p.142.
- 31) 通典. 卷 7. 食貨7 正中條, 大唐武德七年定令

- 男女始生爲黃 四歲爲小 十六爲中 二十一爲丁六十爲老.
- 32) 諸良人相姦所生男女隨父 若姦雜戶官戶他人部曲妻客女 及官私婢 並同類相姦所生男女 並隨母 卽雜戶官戶部 曲 姦良人者所生男女 各聽爲良 其部曲及奴姦主禰麻以上親之妻者 若奴姦良人者所生男女各合沒官.
- 33) 唐六典, 卷 三, 戶部郎中員外郎條, 諸男十五女年十三以並聽婚嫁.
- 34) 唐戶婚律疏議卷十二 卑幼私輒用財物條, 諸應分財物者兄弟均分 其父祖亡後各 自異居又不同爨經三載以上 逃亡經六載以上 若無父祖舊田宅邸店碾磑 部曲奴婢見在可分者 不得輒更論分 妻家所定所得之財不 在分限 妻雖亡沒所有資財 及奴婢 妻家並不得理 兄弟亡者子承父分 繼絕亦同 兄弟俱亡則 諸子均……其未娶妻者別與娉財 古姊妹在室者減男婢財之半 寡妻無男者承夫分.
- 35) 鄭秉學 (1963). 唐律令에 反映된 中國女性の 社會的處遇. *아세아여성연구 2*, p.236.
- 36) 강태권 (1998). 中國의 성문화와 사대금서.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p.186.
- 37) 성균관대 동아시아유교문화권 교육, 연구단편 (2004). Op. cit., p.161.
- 38) 唐會要, 卷 34. 三品以上, 聽有女樂一部, 五品以上, 女樂不過三人.
- 39) 唐會要, 卷 34. 五品以上正員官, 諸道節度及使太守等, 并聽家畜絲竹, 以展歡娛.
- 40) 李秀雄 (1987). *中國娼妓文化史*.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86.
- 41) Ibid., p.159.
- 42)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p.344-345.
- 43) Ibid., p.356.
- 44) 本草綱目, 卷 14. 詹言其黏. 糖言其狀也. 詹糖香樹似橘. 煎枝葉爲香. 似沙糖而黑. 如茉莉花香氣.
- 45) 本草綱目, 卷 14. 皆合香家要用. 不止入藥.
- 46) 本草綱目, 卷 14. 去惡氣伏尸. 別錄. 治惡核惡瘡.
- 47)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66.
- 48) 本草綱目, 卷 14. 豆叶日藿, 其叶似之, 故名° 佛經中藿香諸名有, 〈楞嚴經〉의 ‘兜婁婆香’, 〈法華經〉의 ‘多摩羅跋香’, 〈金光明經〉의 ‘鉢怛羅香’°. 釋名 兜婁 婆香° 皆婁二字梵言也. 嚴經云, 壇前以 兜婁婆香煎水洗 浴.
- 49)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p.366-367.
- 50) 本草綱目, 卷 14. 主治 風水毒腫, 去惡氣. 止霍亂心腹痛. 好古. 飲酒口臭. 煎湯嗽.
- 51)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63.
- 52) 성경, 마태복음 2:11 참조.
- 53) 本草綱目, 卷 34. 宗爽曰. 薰陸卽乳香 爲其垂滴如乳頭也. 鎔榻在地者爲塌香. 盖一也. 時珍曰. 佛書謂之天澤香. 又謂之多伽羅香. 又曰杜魯香.
- 54) 本草綱目, 卷 34. 生南海者色白, 出單于者夾綠色. 香亦不甚. 李珣曰. 是波斯松樹脂也. 紫赤如櫻桃透明者爲上.
- 55)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63.
- 56) 本草綱目, 卷 34. 薰陸. 主風水毒腫, 去惡氣. 伏尸. 癰疹癩毒. 乳香同功° 別錄. 耳聾中風口噤不語. 婦人血氣. 止大腸泄瀉. 能發酒. 理風冷. 李珣曰. 仙方用以辟穀.
- 57) 本草綱目, 卷 34. 釋名. 末藥. 時珍曰. 沒末皆梵言. 生波斯國. 其塊大小不定. 時珍曰. 按一統志雲. 沒藥 樹高大如松. 皮厚一二寸. 采時掘樹下爲坎. 用斧伐其皮. 脂流于坎. 旬余方取之.
- 58) 신약, 요한복음 20:39.
- 59) 本草綱目, 卷 34. 李珣言乳香是波斯松脂. 此又言沒藥亦是松脂. 蓋出傳聞之誤爾. 不知何物也.
- 60)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63.
- 61) 本草綱目, 卷 34. 苦. 平. 無毒. 主治. 破血止痛. 療金瘡杖瘡. 諸惡瘡痔漏. 卒下血. 發明. 凡金刀所傷. 打孫腕跌. 墜馬筋骨疼痛. 心腹血淤者. 並宜研爛熱酒調服.
- 62) 本草綱目, 卷 34. 時珍曰. 乳香活血. 沒藥散血. 皆能止痛消腫生肌. 故二藥每每相兼而用.
- 63) 복족강은 일명 권패류로도 불리우며, 복족류는 흔히 달팽이, 보말, 고둥 등으로 알려진 연체동물을 말한다.

- 64)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70:
全唐詩. 卷 2. 沈煎甲香辦庭燎: 本草綱目.
卷 46. 唐李義山詩所謂沈香煎爲庭燎者.
- 65) 本草綱目. 卷 46. 甲煎以藟藥及美果花灰燒和
蠟成口脂.
- 66) 전혜숙, 이애런, 류재운 (2004). 唐代胡風化
粧文化 研究. 韓服文化 7(2), p.30.
- 67)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64.
- 68) 本草綱目. 卷 34. 恭曰. 鷄舌香樹葉及皮併似
栗. 花如梅花. 子似棗核. 珣曰二月三月花開
紫白色. 至七月方始成實. 丁香生東海及昆侖
國.
- 69) 本草綱目. 卷 34. 藏器. 同姜汁塗. 拔去白須,
孔中生黑者. 異常. 香衣辟汗. 丁香一 兩. 爲
末. 川椒六十粒. 和之. 絹袋盛佩. 無汗氣. 多能
鄙事. 李珣. 殺蟲. 辟惡. 去邪. 李珣. 痔痛.
- 70) 本草綱目. 卷 34. 釋名, 沉水香, 置水則沈. 故
名沈水, 亦曰水沈. 土人破斷之積以歲年朽斷而
心結獨在. 半沈者爲 棧香. 不沈者爲黃熟香.
- 71) 本草綱目. 卷 34. 如觜角硬重沉於水下者爲上
半沉者次之.
- 72) 本草綱目. 卷 34. 半沈者爲棧香. 不沈者爲黃熟
香. 沉香, 青桂, 鷄骨, 馬蹄煎香, 同是一樹.
- 73) 제금련, 신용욱, 이병희, 주매분, 장승엽(2002)
沉香. 경희약대논문집 30, pp.85-86.
- 74) 송인갑 (2000). 남새. 청어와 뼈뼈, p.191.
- 75) 本草綱目. 卷 34. 恭曰. 出天竺國.
- 76) 謝弗著, 吳玉貴譯 (1995). Op. cit., p.355.
- 77) 송인갑 (2000). Op. cit., pp.155-191.
- 78) 本草綱目. 卷 34. 風水毒腫, 主心腹痛霍亂, 中
惡, 邪鬼疰氣清人神諸瘡腫宜入膏中. 破癥癖,
冷風麻痺, 筋吐瀉冷氣, 風濕皮膚瘙, 癢,
氣痢.